

■ 특집2 - “죽은 자의 트랜스내셔널 공간” ■

‘잊혀진’ 또는 ‘읽을 수 없는(unreadable)’ 기록 속의 여성들:

빅 아일랜드(Big Island)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문 경 희

I. 머리말

하와이 섬(Island of Hawai'i)은 미국 하와이주를 이루고 있는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때문에 빅 아일랜드(Big Island)라고 불리기도 한다.¹⁾ 우리에게서 커피와 서핑으로 유명한 코나가 위치한 휴양지이자 최근에 칼라우에아(Kilauea) 화산 폭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장소로도 익숙하다. 빅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도시인 힐로(Hilo)는 하와이주에서 호놀룰루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행정적으로 하와이 군으로 분류되는 빅 아일랜드의 현 시장은 해리 킴(Harry Kim)으로 하와이 한인 2세(1939년생)이다. 그는 2000년에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08년까지 2번의 임기를 거쳤으며, 이후 2016년에 다시 당선되어 2020년 현재까지 3선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하와이주의 섬과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힐로를 포함한 빅아일랜드에서 해리 킴과 같이 백여년 전 조선에서 이주한 한인의 2, 3세 후손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 진행된

* 이 논문은 2019~2020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1) 하와이가 포함된 다른 지명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빅 아일랜드로 부른다. 행정적으로는 하와이 섬 전체는 하와이 군(county)으로 분류된다.

혼종결혼(interracial marriage)으로 인해 외모만으로 그들의 한인 에스닉 정체성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²⁾ 하와이 한인의 후손 중 상당수는 유럽계 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하와이에 오래전부터 거주해 온 아시아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문화는 혼성화와 현지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하와이안(Hawaiian)’이라고 부른다.

백여년 전 조선에서 이주한 한인의 흔적은 빅 아일랜드의 곳곳에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그들의 묘지(graveyard)를 들 수 있다. 힐로에 위치한 알라에 공공묘지(Alae Cemetery)와 홈라니 추모공원(Homelani Memorial Park)과 같은 공공묘역에 다수의 한인 1세 묘들이 위치 해있다. 알라에 묘지의 경우에는 하와이의 한인 1세 뿐 아니라 상당수의 일본인과 필리핀인의 묘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한편, 공공묘역은 아니지만 과거에 사탕수수농장이 있었던 위치에 일부 한인의 묘가 남아 있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공식적인 묘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한인의 묘지가 있다는 표식이 없다. 때문에 지도만 들고 그곳을 찾기로 쉽지 않다. 코나 지역의 경우에는 옛 농장 터를 메워버린 야생 대나무 숲 속이나, 어느 시골 침례교회의 뒷마당에서, 또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에서 한 무더기의 돌무덤과 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한 힐로의 알라에 묘지와 코나 지역의 야생에서 발견된 묘지의 공통된 특징은 그것이 백여년 전에 하와이에 도착했던 한인 1세의 것이라는 것 이외에도 오랜 기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은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잊혀졌다고, 또는 방치되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세워진 묘비의 기록은 지나간 세월만큼 그 흔적 또한 희미해져 있다. 비석들이 비바람에 마모되어 버린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육안으로 묘비에 새겨진 사자(死者)의 이름과 고향, 출생 및 사망 기록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육안으로 그 기록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옛 한자 또는 한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과 지명 등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 특히

2) 2000년도 미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 아일랜드의 한인 인구는 2,592 명이고 그중에서 혼혈인이 911명이었다. 이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003), 29쪽 참조.

한글이나 한자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한인 2, 3세에게 그것은 읽어내기 불가능한 기록에 가깝다.

이 연구는 빅 아일랜드에서 생을 마감한 한인 1세의 묘지와 묘비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연구자는 2018년 3월에 우연한 기회로 하와이 대학 힐로캠퍼스의 교수로 재직 중인 세리 르양피넷 박사(Dr. Seri I. Luangphinit)를 만났다. 라오스 출신의 부친과 일본계인 모친 사이에서 출생한 하와이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연구자를 보자마자 알라에 묘지의 한인 묘비 사진을 보여주었다. 알라에 묘지의 한쪽 편에 ‘코리아 섹션(Korea Section)’이 있는데, 그곳의 묘지는 후손들이 다녀간 흔적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종종 사람들이 오가며 현화를 했거나 향을 피운 흔적이 있는 묘지의 다른 섹션, 즉 일본인과 필리핀인 등의 무덤이 있는 섹션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존재감이 없거나, 또는 찾아오는 후손이 있어도 비석에 새겨진 문구를 제대로 독해할 수 없어서 잘못된 이름과 고향 등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들을 위해 르양피넷 박사는 빅 아일랜드에 묻혀있는 한인 1세의 비석에 적힌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풍우에 의해 마모되었거나, 화산폭발로 인해 손상된 비석의 수가 상당했고, 무엇보다도 한글, 한자 고어와 종종 일본식으로 표기된 한자 등으로 인해 그녀의 비석 정리 작업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한다.³⁾ 이런 경위를 설명하며 르양피넷 박사는 연구자에게 비석 정리 작업에 도움을 줄 것을 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르양피넷 박사와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박물관에 재직 중인 김주용 학예사와 함께 비석연구를 위해 2019년 7월 21일에서 31일까지 총 11일간 빅 아일랜드에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현지조사 기간에 방문한 묘지와 위치, 비석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3) Seri I. Luangphinit,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Korean on the Big Island* (Hawaii: The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2017).

<표 1. 빅 아일랜드 현지조사 방문지 및 비석 수>

묘지명(비/공식)	위치	비석 수	탁본 비석 수	참고
알라에 (Alae) 묘지	힐로 (895 Kauhiula Rd, Hilo)	136기	136기	Korea Section으로 구획이 정해져 있는 곳의 비석 전수
홀루알로아 (Holualoa) 묘지	코나 (765833 Kona Belt Rd Holualoa)	18기	10기	옛 커피농장 터, 야생 대나무 숲에 위치한 비석 전수
칼라히키 (Kalahiki) 묘지	캡틴 쿡 (86-4134 Hwy Captain Cook)	6기	6기	자동차 도로 한쪽 편으로 난 언덕에 위치 총 60기 중 6기
코할라 (Kohala) 묘지	카파오우 (52-4665 Akoni Pule Hwy, Kapaau, Niulii Cemetery Kapaau)	3기	3기	코할라 침례교회 옆 마당에 위치, 총 60기 중 3기
전체		163기	155기	

마모된 비문을 읽고 기록하기 위해 먹물과 한지를 이용해서 탁본을 뒀다. 탁본을 통해 문자의 점획과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을 명확히 읽어낼 수 있었는데, 네 군데 묘지의 비석 총 163기 중에 155기의 탁본을 뒀으며, 그 중 일부는 향후 연구자들이 재직 중인 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위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비문과 비석, 비문 정보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은 고고학 전공자인 김주용 학예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구자는 조사한 무덤과 비석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들의 흔적을 찾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존 출판된 자료 중에서 그들의 개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던 자료는 1903~1905년간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국인의 명단이였다. 선박부라고도 불리는 이 자료는 미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 있는 원 자료를 이덕희(2004)가 정리한 것이다.⁴⁾ 명단은 영어로 기록되어있고, 기록 내용에는 이민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직업, 이전거주지, 목적지, 여비 납부자, 지참금, 문맹 정도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 선박부에

4) 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Hawaii: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004).

기록된 내용 중에 영어가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⁵⁾

이와 함께,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일본 정부의 한인 여권(또는 여행권) 발급 기록에서 일부나마 그들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1910년 이후 일본정부가 한인의 여권발급을 공식적으로 관할했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한인 이민이 임시 중단된 1924년까지 하와이로 가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사료로 보존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이민자 남성들의 가족이 하와이로 입국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여권 기록을 통해 하와이의 한인 누가 고국의 누구를 위해 여권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 600여명의 하와이 한인이 고향 방문 후에 하와이 재입국을 신청하였다. 이들을 제외하고, 1,300여개의 신규여권이 한인들에게 발급되었다. 하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859명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소위 ‘사진신부(picture bride)’로 불리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여권 발급을 받았지만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기록을 통한 하와이 도착자의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권신청자와 여권주인의 이름이 영어 뿐만 아니라 한자로도 기록되어 있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여권발급일, 그리고 하와이 한인의 고향 방문 후 재입국 등의 기록이 남아있어서 빅 아일랜드의 묘지에 묻혀있는 한인 1세의 흔적을 찾는 데에 유용한 자료임은 틀림없다.⁶⁾

하나의 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고향, 출생년월일

5) 대표적으로, 오인환, 공정자(2004)는 1903년에서 1904년 6월 시점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초기 이민자의 국내 거주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영어 표기의 문제 뿐 아니라 이전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선박부에 적힌 내용이 영구적 가족주소인지 아니면 떠나기 전 임시 거주지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더욱이 1905년 이후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상당수의 지명이 바뀐 결과 명확한 거주지 파악에 애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2011), 86-87쪽.

6) 이외에도 현지조사 기간에 만났던 몇몇 하와이 한인 3세대들과 면담과 또한 힐로 소재 연합감리교(Hilo United Methodist Church)의 이말용 목사와 코나 한인교회의 김교문 목사와의 면담 내용도 본 연구의 문제인식과 논의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현지조사 기간 내내 소위 하와이 ‘로컬’ 전문가로 우리를 안내하고 다양한 논의를 함께 했던 세리 르양피넷 박사의 영향도 그녀가 집필한 저서 인용을 통해 이 글에 자주 언급될 것이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다. 성별 파악은 물론 종교,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서도 파악 가능한 비석이 있었다. 지면의 한계상 한 연구에서 155기의 비석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체 비석 중에 여성과 관련 있는 비석과 정보에 집중한다. 하와이 한인 1세 연구의 상당수는 1903-1905년 사이에 사탕수수농장으로 간 남성들에 관한 것이다. 수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같이 이민을 갔으며, 특히 1910-1924년 사이에 약 700명 규모의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비석들은 주로 1950년대 이전에 세워졌다. 그 시기적 특성상 여성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더 일찍 하와이에 입국한 남성의 비석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의 비석이 존재하고, 그들의 비석 또한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정보를 선박부와 여권발급 기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통해 하와이로 오게 된 여성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기 하와이 한인 중에서 빅 아일랜드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한인 중에 여성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남성의 비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이민과 결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및 종교 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하와이 한인 1세에 대한 연구 동향과 인구학적 특성

1. 하와이 한인 1세에 대한 연구 동향

하와이 한인 1세에 대한 연구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민사적 관점에서 하와이 한인 1세의 이민 과정 및 경로, 정착과 노동 여건, 일상생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⁷⁾ 일제강점기에 이승만과 박용만, 안창호 등이 중심이

7)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김원용 저, 손보기 엮음, 『재미한인 50년사』 (서울: 혜안, 2004); 웨인 패터슨 저, 정대화 옮김, 『하와인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서울: 들녘, 2003). 외 다수.

되어 진행된 그들의 독립운동 또한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⁸⁾ 감리교나 한인기독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한인의 이민 및 이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⁹⁾ 최근에는 남성 중심의 이민과 독립운동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서 하와이에 도착한 1세 여성들의 생활 경험과 그들의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⁰⁾ 그 중에서도 ‘사진신부’의 생애사를 소개하는 연구나 문학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¹¹⁾ 이들 연구 외에도 하와이 한인 1세의 이민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국제관계적 맥락에서 파악한 연구가 있으며,¹²⁾ 최근에는 하와이 한인 1세 당사자가 남긴 기록에 의거하거나, 그들 자녀의 구술에 바탕을 둔 가족사가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하와이 한인의 이민사와 생활사에 대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¹³⁾

-
- 8) 김도형, 「3.1운동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21호(2002), 97-130쪽; 김재기, 「미국한인들의 3.1운동 지지와 임시정부초기 독립운동 자금 모금운동」, 『한국보훈논총』, 18권(2019), 43-62쪽; 오원철, 『하와이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한인 교회와 사진 신부와 관련하여』 (광주: 전일실업(주) 출판부, 1999). 외 다수.
- 9) 이덕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19호(2003), 285-339쪽;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38집(2013), 205-236쪽;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16호(2002), 35-46쪽. 외 다수.
- 10)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호(2016), 289-318쪽;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사 연구』, 26호(2017), 1-26쪽; Alice Yun Chai, “Feminist Analysis of Kife Histories of Hawaii’s Early Asian Immigrant Wome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2016), pp. 38-69. 외 다수.
- 11) 오윤호, 「제국의 경계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위치: 하와이 사진신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8집(2017), 131-162쪽; 정미옥, 「여성의 이주와 (탈)근대성: 사진신부」, 『문화와 융합』, 40권 3호(2018), 297-338쪽; 정은귀, 「천사도와 사진 신부: 초기 재미 한인 이민문학의 재구성」, 『외국문학연구』, 55집(2014), 217-241쪽. 외 다수.
- 12) Brandon Palmer,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집(2005), 169-201쪽.
- 13) 문옥표, 이덕희, 함한희, 김점숙, 김순주(역주 및 해제),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서울: 일조각, 2017); 맹 도티 쉬러 저 신명섭 역, 『야무진 한국여인 아물이』 (서울: 종합출판 미디어, 2007); 이선주, 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종합해보면, 연구의 초점과 대상이 다르더라도, 하와이 한인 1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와이에 처음으로 도착한 한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가족과 공동체를 꾸리고 살았으며, 그 가운데에 종교와 정치(특히 고국의 독립운동)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종종 그들의 이민 당시 국가 및 국제사회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이뤄지기도 하며, 또는 이민자 개인의 행위성,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수준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에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의 구술 자료를 통한 미시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연구의 대상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남성 이민노동자나 독립운동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여성, 구체적으로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건너 간 여성의 이민과 정착, 노동, 가족 및 공동체 활동, 독립운동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와이 한인 1세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섬에 살았던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모든 길은 오아후로 통한다’는 통념이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인구학적으로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오아후 섬에 살았던 한인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많은 연구에서 다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¹⁴⁾ 하지만 오아후 섬이 아닌 다른 섬에도 한인들이 도착해서 살았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후손과 그들이 남긴 삶과 죽음의 행적은 여전히 그 지역에 남아 있다. 이렇듯, 하와이 한인이라고 해서 단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긴 어렵다. 조선에서 그들의 출신 지역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그들이 도착해서 살았던 지역 또한 다양하다. 이민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유사하지만 다르게 나타나듯이, 지역에 따라 이민자의 삶과 행적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남아 있다. 지역 간 이민자의 삶의 행적을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인 아니다. 하지만 빅 아일랜드의 한인 연구를 통해 오아후로 대표되는 하와이 이민사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방법론 측면에서도 이 연구가 비석, 비문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술사나 생애사, 고문서 등 문헌 중심의 다른 한인 이민 연구와 차별화된다. 더욱이

14) Seri I. Luangphinit, *The Paths We Cross*, p. 4.

이 연구는 남성 중심의 초기 하와이 한인 연구와는 달리 여성의 비석을 대상으로, 그리고 남성의 비석을 통해 백여년 전 조선에서 빅 아일랜드로 이동해서 살았던 여성의 삶의 궤적을 유추해 보는 작업이다. 이민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 때문에, 또는 사회적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외되기 쉬운 소수 이민자의 이야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하와이를 포함한 해외 한인 연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 하와이 한인 1세의 인구학적 배경과 빅 아일랜드의 한인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을 떠난 한국 이민선 제일호는 1903년 1월 13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101명의 한인이 타고 있었다. 그때부터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 이후 이민이 일시 중단되기까지 64회의 항해를 통해 7,248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사탕수수농장에서 육체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배를 탄 것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7,248명 중에 남성 6,337명(87.43%), 여성 910명(12.56%), 미상 1명이었다.¹⁶⁾ 이들 중 1세~14세 아동의 수는 531명에 해당한다. 도착 시기 당시 남성들의 연령은 대다수가 20세 이상 40대 미만이었는데, 20~24세 2,030명, 25~29세 1,829명, 30~34세 1,101명, 35~39세 771명이었다. 즉, 20대가 43.2%, 30대가 25.8%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체 이민자 중에 기혼자는 44.8%(3,244명)로 미혼자 31.5%(2, 282명) 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기혼자 중에 선박부에 ‘결혼 상태(marital status)’를 묻는 칸에 부인이나 남편을 잃은 ‘상처자(widower)’로 표기된 사람이 전체의 23.2%(1,683명)에 해당된다.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수는 21.6%(1,561명)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¹⁷⁾

가족동반을 한 이민자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506가구에 해당된다. 이들 중 기록이 명확해서 분석 가능한 493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대주는

15)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87쪽. 이덕희의 2004년 연구인 선박부에 기록된 한국인 이민자 명단 재인용.

16) 미상 1명은 선박부에 딸, 아들이 아니라 ‘아기(baby)’로 표기되어 있다.

17) 상처자의 경우 여성인 경우도 0.5%(37명)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다른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하였다. 조은정, 같은 책, 99쪽.

모두 남성이었고, 그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은 91.9%(449명), 상처 5.5%(27명), 미혼 3.4%(17명)이었다. 유배우자의 경우 부인을 동반한 사람은 398명(88.6%)이었고, 부인 이외 다른 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51명(11.4%)이었다.¹⁸⁾ 가족 중에는 부인 이외에 윗세대(모친, 부친), 다음 세대(자녀, 조카), 그리고 소수이지만 형제자매가 포함되었다. 439 가구 중에 부부만 이민한 경우가 30%(148가구)이었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42.8%(211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처자나 미혼자 중에 부모와 동기 등을 포함한 가족이민 가구 수는 8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동반 가족 중 아들과 딸의 비율을 보면, 아들 275명, 딸 174명으로 딸 보다는 아들의 수가 많았다.¹⁹⁾

초기 하와이 한인들은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집되었으며²⁰⁾, 주로 도시 출신 비농업 분야의 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웨인 패터슨은 그의 저서에서 그들은 “일용 잡부, 군인 출신, 지방 서기, 경찰, 광부, 어부, 선박공, 철도원, 나무 채벌꾼, 하인, 가정부, 학생, 정치적 망명자, 스님 등”이었고, 그들 대다수는 도시의 실업자였다고 지적한다.²¹⁾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와이에 도착한 이후에도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을 온 이유는 조선 말기의 참상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근과 기아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설명된다. 당시에는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가 공식화되기 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주요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1903년부터 한일합방 이전인 1909년까지 약 1,200명의 한인이 귀국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²⁾ 귀국하지 않은 한인들 중에 약 1,1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906년과 1907년 사이에 미국 서부지역으로

18) 조은정, 같은 책, 102쪽.

19) 조은정, 같은 책, 107쪽.

20) 웨인 패터슨, 『하와이인 한인 이민 1세』, 24쪽. 테슬러의 11개 이민모집 사무실이 조선반도의 전역에 위치해 있었음. 북쪽의 성진과 의주, 서울과 인천, 평양, 원산과 남쪽의 부산, 목포 등에 산재해 있었다.

21) 웨인 패터슨, 같은 책, 25쪽

22) 웨인 패터슨, 같은 책, 58쪽.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191명이 귀국했다.

이동했다. 1907년에 미정부는 하와이의 일본인과 일본의 신민으로 간주된 한인의 본토 진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589>를 공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동안 하와이 한인의 본토 진출은 중단되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03년 초부터 한인 노동자들이 빅 아일랜드에 유입되었다. 초창기에 그들은 동쪽에 있는 와이아키에아(Waiakea)와 와이나케(Wainake) 집단 농장에 배치되었다. 이후 더 많은 한인이 유입되었으며, 1905년 기록에 따르면 총 844명이 빅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10년 인구조사에서는 한인 수가 1,525명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하와이제도 전체 거주 한인 수가 4,533명이었는데, 다른 섬(오아후 섬 1,024명, 카우아이 섬 873명, 마우이 섬 728명, 라나이 섬 7명, 몰로카이 섬 6명)에 비해 빅 아일랜드의 한인 거주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²³⁾ 하지만 점차 하와이의 가장 큰 대도시인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섬으로 한인들의 이동이 증가했다. 1910년도 인구조사에서 호놀룰루 거주 한인의 비중이 10.1%였는데, 1920년에 26.6%, 1930년에 40.3%, 이후 1950년에 68.3%로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빅 아일랜드의 한인 상당수도 호놀룰루로 이주했으며, 섬에 머물렀던 한인 중에도 대다수는 사탕수수농장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여 장사 또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²⁴⁾ 아래 표 2는 1905년 당시 빅 아일랜드의 농장에 분포된 한인 이민자의 대략적 숫자이다.

<표 2> 빅 아일랜드의 집단 농장과 한인 노동자 집계 (1905년)

농장이름	한인노동자 수	공장운영 기간
Hawai'i Mill and Plantation (Hilo Mill Company)	74	1901-1923
Hilo Plantation (Hilo Sugar Company)	11	1880-1965
Laupāhoehoe Plantation (Laupāhoehoe Sugar Company)	24	1884-1979
Kūka'iau Plantation	3	1884-1917
Pā'auhau Plantation	40	1879-1972

23)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67쪽.

24) Seri I. Luangphinit, *The Paths We Cross*, pp. 11-12.

빅 아일랜드(Big Island)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Honoka'a Plantation (Honoka'a Sugar Company)	59	1876-1979
Hāmākua Plantation (Hāmākua Sugar Company, Honoka'a)	39	1883-1974
Pacific Sugar Mill (Honoka'a-Waipio)	49	1879-1928
Hālawā Mill & Plantation (Kohala Sugar Company, Hala'ula)	8	1873-1928
Puakō Plantation (South Kohala)	10	1903-1913
Union Mill (Kapa'au)	17	1874-1937
Kohala Plantation (Kohala Sugar Company, Hala'ula)	86	1863-1975
'Ōla'a Plantation ('Ōla'a Sugar Company, Kea'au)	267	1900-1960
Hawaiian Agricultural Plantation (Pāhala)	51	1876-1972
Hutchinson Plantation (Hutchinson Sugar Company, Na'alehu)	106	1885-1972

출처: Seri I. Luangphinit, 같은 책, 7쪽.

빅 아일랜드의 한인 중에서 사탕수수농장을 떠나서 대도시인 힐로시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시내 중심지에서 소규모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한 사례도 발견된다. 힐로시의 볼케이노 거리(Volcano Street)에 한국인 신발가게(상호명 Korean Shoe Store)가 운영되었으며, 프론트와 리처드섬 거리(Front and Richardsom Street)에서는 최형준(Choy Hung Choon)이라는 한인이 한국호텔(상호명 Korean Hotel)을 운영하였다.²⁵⁾ 그 호텔 근처 프론트 거리에 박봉순(Park Bong Soon)이 소유한 한국약국(상호명 Korean Drug Store)이 운영된 기록도 남아 있다.

3. 비석에 새겨진 빅 아일랜드 한인 정보

먼저 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155기 중에 남성의 비가 139기, 여성 16기였다. 이는 이름을 통해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름 이외에 여성임을 단정할 수 있는 표현, 즉 차녀(次女), 사랑하는 어머니(Loving Mother), 부인(婦人), 또는 남편 이름(夫) 등이 새겨진 것은 8기에 해당한다. 하와이의 초기 한인 중에 남성

25) *Ibid.*, p. 15.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상기한다면, 전체 비석 중에 남성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의 경우 총 14기 중에 6기가 2세대의 것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된 여성의 묘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힐로 알레아 묘지에 위치해 있다. 이는 사망 시점까지 코나와 캡틴쿱, 코할라 지역의 농장에서 일했던 남성 한인들이 대체로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었거나, 또는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 부인 등 가족과 헤어져서 홀로 여생을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함께 왔거나 사친신부와의 결혼을 통해 하와이에서 가족을 꾸렸던 간에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던 남성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찾아서 도시로 이동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이에 관한 정보이다. 155기 중에 출생과 사망 일자가 명확히 기록된 것은 총 8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적힌 비석 수는 총 117기이다. 117기 중 한인 1세대는 총 105명 이었다. 출생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은 1860년생으로 44세에 하와이로 왔고, 가장 늦은 사람은 1902년생으로 두 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62.6세인데, 가장 단명한 사람은 4세에, 반대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89세에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년도가 확실한 1세대 141명 중에 1900-1909년에 사망한 사람은 1명, 1910년대 사망자는 2명이었다. 그리고 1920년대 19명, 1930년대 34명, 1940년대 47명, 1950년대 32명, 1960년대 5명, 1980년대 1명으로 나타났다. 고향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고향이 기록된 비석은 총 94기였다. 그 중에 경상도가 20기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평안도 19기, 경성부 15기, 경기도 13기, 황해도 12기, 함경도 5기, 전라도 4기, 충청도 4기, 강원도 1기, 하와이 1기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세운 비석은 총 17기였는데, 이는 최근까지 자녀 세대가 묘를 돌 본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성의 비석에 대한 논의는 다음 3장에서 논의하겠다.

III. 여성의 묘와 사진신부

1. 한인 여성 1세와 2세의 비문 정보

총 155개의 묘 중에서 비문에 새겨진 이름과 여성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통해 파악한 여성의 묘는 총 12개에 해당한다.²⁶⁾ 구체적으로, 여성 1세의 묘 6개, 여성 2세의 묘 6개로 구분 가능하다. 전체 묘 중에서 여성의 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학적으로 한인 1세 여성의 수가 1세 남성의 수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유추 가능한 지점은 이 조사의 연구대상인 알라에 묘지와 홀루알로아, 칼라히키, 코할라에 위치한 묘지들에서 발견된 묘는 주로 20세기 초중반에 사망한 한인의 무덤이라는 것과 관련 있다. 즉, 당시에 한인 남성의 평균 연령이 여성의 연령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나 질병이 아니었다면 남성의 사망시기가 여성의 그것보다 빨랐을 것이다. 1903년~1905년 사이에 하와이로 들어온 부부 간 연령 차이를 봤을 때 남편이 아내보다 연상인 경우가 73.6%에 해당되었다.²⁷⁾ 그들 중 남편이 1~12세까지 연상인 경우가 94.5%였고, 나머지는 그 이상으로 연상이었다. 부인이 연상인 경우도 있었으나 그들 중 과반수는 1~2세 차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10년~1924년까지 집중적으로 유입된 여성들의 경우에 하와이 남성 한인의 부인이 대다수였고, 특히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젊은 여성(10대~20대), 즉 사진신부였다. 때문에 한인 여성 1세의 사망 시기는 20세기 중후반이 일반적이다.²⁸⁾ 다음은 한인 여성 1세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과 선박부와 여권 기록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26) 앞의 김리희의 경우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선박부와 여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더 이상의 개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묘를 설명하는 이 절에서 김리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27)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113쪽.

28) 하와이 카운티 시장 해리킴의 모친 김야물씨의 경우 1984년에 82세에 생을 마감했으며, 묘지는 힐로의 훔라니 공공묘지에 있다. 그녀의 묘 옆에 나란히 세 명의 한인 여성이 묻혀있는데, 모두 김야물씨와 같이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온 친구들이다. Seri I. Luangphinit, *The Paths We Cross*, p. 27.

〈표 3〉 여성 한인 1세의 비석 기록

	이름(고향) 출생년도~사망년도	특이사항
1	마리아 추(MARIA CHOO) 1951~1881	남편 박동수(1861~1933)와 합장되었음. 선박부에는 박동수의 부인 이름이 Pook, Sun Ye 로 기록되어 있고, 5살 나이 차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리아 추와 동일인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 비석에 FATHER-PARK DONG SOO, MATHER-MARIA CHOO와 4남 1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조선 경성 정동 출신
2	최용녀(평안도 평양) 1939~1880	비석에 崔婦人龍女之墓라고 기재되어 있음
3	金그림(경성부내) 1944~1882	비석에 LOVING MOTHER 문구가 새겨져 있음
4	조명순(경상남도 부산부 좌천동 500 번지) 1924~1891	‘子 동주’가 비석에 새겨져 있음. 선박부에 이름이 없음 이름을 통해 여성으로 추정
5	김경선/김익순 1980~1891	1922년에 사망한 남편 김경선과 합장됨. 비석에 고향 정보가 없어서 선박부에 나타난 7명의 김경선 중 정확히 누가 비석의 주인인지 특정할 수 없음
6	정혜지	이름 이외 다른 정보 없음

비석에 이름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는 한 사람(6번)을 제외하고 다른 다섯 여성은 모두 기혼으로 파악된다. 다섯 여성의 사망 시기 중 가장 빠른 연도는 1924년이고, 가장 늦은 시기는 1980년이다. 한 곳에 부부합장한 사례가 두 건이며, 모두 힐로의 알라에 묘지에 묻혀 있다. Maria Choo의 경우에는 한인 1세 중에 드물게 한자가 아니라 영문 세례명으로 비문에 새겨졌으며, 金그림의 경우에는 한글 이름인 관계로 성은 한자로, 이름은 한글로 새겨져 있다.

한인 여성 2세의 경우, 모두 출생 후 그리 오래 살지 못하였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사례(3번)부터 2세~5세에 사망한 영유아 묘(1번, 2번, 4번, 5번)가 다섯 개나 발견되었다. 남명순(1번)과 최원순(2번)의 비석에

빅 아일랜드(Big Island)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구주강생’이 새겨진 것으로 봐서 기독교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다섯 묘는 힐로 알라에 묘지에 위치해 있으며, 몰로카이에서 출생한 口·례鄭의 묘는 코나 홀루알로아 묘지에서 발견되었다.

<표 4> 한인 여성 2세의 비석 기록

	이름(고향) 출생년도~사망년도	특이사항
1	남명순(전남 순천군) 1923~1921	알라에 묘지에 같이 묻힌 父 남순명의 차녀. 기독교인 (십자가)와 ‘구주강생’이라는 표현이 비석에 새겨져 있음)
2	최원순(경북 경주 천북면 갈곡리) 1923~1919	비석에 父 최홍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선박부에 따르면, 부친 최홍수는 1905년에 26세로 組 父 최기원(68세)과 오빠 최갑출(7세)과 함께 입국했음. 최홍수는 하와이에서 김씨 성을 가진 여성과 재혼하여 최원순을 낳은 것으로 추정. ‘ 구주강생’이 비석에 새겨져 있음
3	문애시다(ESTHER MOON) 1927.9.8.~1927.9	출생 후 바로 사망한 영아 묘인 것으로 추정
4	김사라(SARAH KIM) 1933~1932	2세 영아 묘
5	전봉녀 1934~1933	2세 영아 묘
6	정매례(口·례鄭) 1933~1908	모로가이(몰로카이) 출생, 장녀 인선, 차녀 성녀가 비석에 새겨져 있음

2. 한인 남성 1세의 비석 기록과 부인에 대한 정보

이 연구에서 조사한 묘지 대다수는 한인 남성 1세의 것이다. 부부합장 두 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남성들이 홀로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그 남성들 중 여권신청을 통해 부인을 한국에서 데리고 온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1910년~1924년 기간에 일본 정부가 한인에게 발급해준 여권 기록을 살펴보았다. 비석의 주인과 여권신청자의 이름을 대조해본

결과 오직 두 명의 남성이 고향에서 본부인을 초청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였다. 두 사례 모두 평안도 출신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첫 번째 김춘식의 사례는 비석에 ‘양산리’라고 고향이 새겨져 있어서 어느 지역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권에 기록된 부인의 이전 거주지, 즉 ‘평안’에 착안해서 평안도에 있는 ‘양산리’ 지명정보를 검색해 본 결과 평안북도 대관군, 평안남도 맹산군, 평안남도 개천 세 군데에 동일한 지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군데 중에 어느 곳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비석과 여권 정보 대조를 통해 비석 주인의 출신 지역이 평안도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김영빈의 경우에는 여권신청 당시에 부인의 이름은 없고 ‘朴氏’라고만 기재된 것을 파악하였다. 10 여년 동안 이산자로 살면서 본부인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성만 기재했어도 여권 발급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기혼 남성의 비석 기록과 본부인의 여권 기록

	비석 주인(여권신청자) 고향, 결혼여부, 출생~ 사망년도	본부인 (고향, 여권발급일)	특이사항
1	김춘식(양산리) 기혼, 1880~1961	신숙경 (평안, 1915.3)	신숙경의 여권 정보를 통해 비석에 새겨진 김춘식의 고향 ‘양산리’가 평안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추정
2	김영빈(평안도 영변군) 기혼, 1875~1919)	박씨 (평안도, 1915.3)	김영빈은 1905년에 홀로 하와이로 왔다가 1915년에 부인 박씨를 위해 여권 신청

한편, 조사 대상 139명의 남성중에 14명이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여성을 부인(wife)이라고 밝히며 하와이로 데리고 오기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6>은 비문의 내용과 선박부, 여권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들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14명 중에 6명의 남성이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5명(1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 두 명, 1명(3

번)이 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이유 또는 동기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먼저 신청한 여성의 여권은 발급되었지만, 해당 여성이 하와이로 입국하지 않았거나 못하게 되어서 포기하고 다른 여성의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신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조선에서 하와이로 가는 경유지인 일본에서 받게 되는 의료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와이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있었으며, 어떤 여성은 집안의 반대 때문에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²⁹⁾ 한편,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 남편 될 사람에게 여행권과 미국에 도착할 여비를 받았으나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떠나지 않은 여성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고된 적도 있다.³⁰⁾

<표 6> 사진신부와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여권신청자)의 비석과 부인의 여권 기록

	비석 주인=여권신청자 이름(고향) 도착 당시 결혼 여부, 출생년도~사망년도	여권 발급자 이름 (고향, 발급연도)	특이사항 (남성 결혼 추정 연령)
1	김치옥(평안북도 의주) 미혼, 1884~1949	이기순(전라, 1913.4) 최삼선(전라남도, 1914.3)	전라남도 출신 여성 두 명의 여권 신청 (30세)
2	오명선(황해남도 해주) 미혼, 1877~1961	최아지(황해남도 해주, 1919.3)	(42세)
3	김양록(평안북도 홍문거리) 상처자, 1872~1920	장선이(평안, 1914.9) 정말남(평안북, 1916. 10) 박화이(평안북, 1916.11)	비석에 영문이름 Rusty Kim과 두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부인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음. 여성 3 명의 여권 신청 (44세)

29) 이경민,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1: 하와이 이민과 사진결혼의 탄생」, 『황해문화』, 56(2007a), 409쪽.

30) 이경민,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2: 하와이 이민과 사진결혼의 탄생」, 『황해문화』, 57(2007b), 407-408쪽. 「寫眞만 보고 맺은 인연, 신부가 돌연히 가기 싫다고 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1923.7.18.)에 실린 내용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평양의 어떤 여성은 사진결혼으로 맺어진 남편이 고향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로 같이 떠나기로 하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지 않아 서신을 통해 파혼하였다. 그러자 8년째 되던 해에 남편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동안 보내준 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가장과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사진결혼의 고배, 9년 수절로 기다리던 신부, 한번 변절로 황령죄로 몰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1934.9.5.에 실린 내용이다.

4	이영선(경상도 양산) 미혼, 1868~1921	박신일(경기, 1913.5)	(45세)
5	이창근(경기도 강화군 장령면 대정동), 미혼, 1889~1922	김석마(경기, 1918.2)	이창근은 16세 미만 아동으로 입국 (29세)
6	이명운(경상북도 청하군 권리동) ~1934	정량선(경남, 1922.5)	이명운의 이름은 선박부에 나타나지 않음. 정량선과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성과 결혼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 (알 수 없음)
7	남순명(전남 순천) 미혼, 1878~1936	김순남(경기, 1914.10)	4남 2녀의 자녀를 두었고, 힐로 묘지에 묻힌 딸 남성애 (2살)의 부친 (36세)
8	문병섭(함경남도 북청군) 기혼, 1880~1936	김동남(경남, 1919.8)	문병섭은 기혼이었으나 홀로 하와이에 왔음. 고향이 다른 경남 출신 김동남을 위해 여권 신청 (39세)
9	김순경(경북 경산군 경산면 신교동), 상처자, 1880~1937	이춘매(경남, 1924.3)	(44세)
10	이봉선(서울 광진구 뚝섬) 상처자, 1869~1940	장덕선(경기, 1916.10)	(47세)
11	김경락(평남 평양부) 상처자, 1869~1940	고인선(황해, 1914.8) 고인신(황해, 1915.9)	(46세)
12	이성목(황해도 장연군) 기혼, 1874~1944	박상년(황해, 1917.3) 박귀년(경남, 1923.12)	입국 당시 기혼자였지만, 본 부인의 여권을 신청한 기록은 없음. 자매로 추정되는 박상년과 박귀년 여권 신청 (49세)
13	이영근(평안남도 강동군 강동읍), 상처자, 1875~1944	이준도(평남, 1913.8) 민연이(경남, 1916.6)	(41세)
14	박치룡(황해도 수안군 천곡방), 기혼, 1860~1931	권엘리자베스(황해, 1913.6) 김신영(황해, 1913.12)	부인(40세)와 딸(성실), 아들(낙선)과 함께 이민을 왔으나, 1913년에 두 여성의 여권 신청 (53세)

사진신부들의 결혼은 주로 ‘권유원’ 또는 ‘인물 거간꾼’으로 불린 중매쟁이에 의해 이뤄졌다.³¹⁾ 이들 중매쟁이는 주로 하와이에서 귀국한 남성이었거나, 사진결혼으로 하와이로 간 여성의 친척이나 이웃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고향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중매에 나섰다. 세 명의 자매가 같은 지역으로 사진결혼을 통해 이민 온 경우도 있는데, 1917년 이추지(Chu Chi Lee)의 경우가 그러하다.³²⁾ 그녀는 하와이 도착한지 몇 년 후에 여동생 두 명의 사진결혼을 성사시켰다. 하와이에서의 생활이 일체치하의 고국보다 낫겠다는 그녀의 생각에 부모님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표 6>의 11번 김경락은 이름과 고향을 봤을 때 두 자매인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두 여성의 여권을 1년 단위로 발급받았다. 여권의 기록상 자매 모두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의아스럽다. 이 경우 한 남성이 두 자매와 시차를 두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에 자매나 친척이 함께 사진신부로 들어와서 산 경우가 예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이 경우 고인선과 결혼한 김경락이 1년 후에 고인선의 여동생인 고인신을 초대해서 하와이로 오게 하였고, 다만 법적으로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게만 여권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인으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07년에 <행정명령 589>로 인해 한인의 하와이 이주가 중단된 것은 하와이의 일본인과 한인들의 미 본토 이주와 관련이 있다. 일본인에 비해 한인의 수는 극히 적었지만 한인들이 일본의 신민이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중단 명령을 같이 받게 되었다.³³⁾ 이후 1908년에 일본은 미국과 신사협약(紳士協約)을 맺었는데, 일본 정부 스스로 일본인의 미국 이민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당시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일본인 본인의 가족 초청은 가능하도록 하는 인도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31) 이경민,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2」, 410쪽.

32) 이선주, 「하와이 이민 초창기 한인들의 감정구조」, 『한국학연구』, 31(2013), 51쪽.

33)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297쪽.

이는 1924년에 미국의 배일이민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효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에 남아있었던 가족과 미국의 남편 간 재결합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 제도로 인해 사진결혼이 성행하게 되었다.³⁴⁾ 1908년부터 1924년까지 총 14,276명의 일본여성이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주로 후쿠오카와 히로시마, 쿠마모토, 야마구치, 오키나와와 같은 남서부 지역 출신이었다.³⁵⁾ 일본 신민이었던 한국 여성들 또한 한인 남성과 사진 교환을 통해 서로 결혼을 결정하면 남성이 보내주는 여비 약 2백달러를 기다렸다가 하와이로 떠나는 배를 탔다. 그리고 그들은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곧바로 그곳 이민사무소로 가서 대기하고 있던 한인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혼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조선에서 중매쟁이들은 직접 여성들을 찾으러 다닌 경우도 있지만,³⁶⁾ 여성들이 먼저 중매쟁이를 찾아간 경우도 다수이다. 10대의 젊은 여성들이 하와이로 가고 싶었던 주요 요인은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파악된다. 국내에 사진신부들의 구술을 토대로 출판된 문헌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1912년에 대구의 이희경, 1913년에 평암도의 김홍순, 그리고 1915년에 진주의 천연희 등이 미국에서 대학에 가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였다.³⁷⁾ 교육을 위해 하와이를 택했던 상당수 여성들은 기독교인으로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 당시 19세의 이희경은 선교사가 세운 대구 신명여자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으며, 천연희의 경우에도 1914년에 호주의 선교사가 설립한 진주 정숙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과를 다니는 중이었다. 천연희는 자신의 사진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히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다. 즉, 그녀의 친구 남경애가 사진결혼하여

34) 하와이 사진신부를 일본에서는 ‘샤신하나요메(寫眞花嫁)’라고 부른다.

35) Alice Yun Chai, “Feminist Analysis of Kife Histories of Hawaii’s Early Asian Immigrant Women”, p. 42.

36) 1912년에 대구에서 하와이로 간 이희경은 자신의 집으로 하와이에 있는 남성의 사진을 들고 찾아온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결혼이주를 결심하였다고 한다. 하와이에 가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중매쟁이의 말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37) 김희곤 외, 『대구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이선주, 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마산 출신 박금우의 아버지 박태구씨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천연히는 자신도 사진혼인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혼자 말을 타고 진주에서 마산으로 가서 박태구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이후 신랑 길찬록(1869~1954)과 사진결혼을 하게 되어 1915년 1월에 진주를 출발하여 6월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³⁸⁾ 위 세 여성의 사례와 꼭 같지는 않더라도 미국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열망이 사진신부들의 하와이 이민을 추동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육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수탈로 인한 경제적 피해, 기아와 가난은 젊은 여성들의 하와이행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토지 탈취와 조선미 수탈, 1920년부터 진행된 산미증산계획에 따라 쌀 이외에 다른 잡곡 생산이 어려웠던 경상남도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 이에 따라, 경남 출신 남성의 생계를 위한 도일이 이 시기에 증가했는데,³⁹⁾ 젊은 여성에게는 하와이 사진결혼이 대안으로 부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0~1924년에 하와이로 들어온 사진신부 중에 경상도 출신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⁴⁰⁾ 당시에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두 곳이 사진신부의 목적지였는데, 대체로 영남 등 한반도 남부 출신이 하와이로 입국한 반면, 캘리포니아로 간 여성(115명 추정) 중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⁴¹⁾ 한편, 이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비석의 주인공이 알려주는 정보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앞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14기 비석의 주인이 발급받은

38)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60쪽.

39) 문경희,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호모미그란스』, 19집(2018), 16-17쪽.

40) 1910-1924년 사이에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의 출생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1,933명 중에 경상도 출신이 706명(36.5%)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그 수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기별 전체 한인 하와이 도착자 중 경상도 출신 비율은 1910-1912(14.3%), 1913-1915(23.9%), 1916-1918(35%), 1919-1921(47.9%), 1922-1924(61.6%)이다.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118쪽.

41)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298쪽.

여권의 주인공, 즉 여성 21명의 출생지역을 살펴보면 황해 6명, 경남 5명, 평안 4명, 경기 4명, 전라 2명 순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사진결혼을 한 남성 14명의 출신지역이 평안도 4명, 황해도 3명, 경상도 3명, 경기·서울 2명, 전라도 1명, 함경도 1명 순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남 출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로 갈수록 경남 출신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진결혼을 한 남성의 나이이다. 신부가 여행권을 발급받았을 당시에 14명 중에 가장 나이가 적었던 사람은 29세로 미성년으로 하와이에 입국한 사례(5번)이다. 한편, 가장 많았던 연장자는 1860년생인 53세(14번)이다. 나이를 알 수 없는 6번 사례를 제외한 남성 13명의 평균 연령은 42세이다. 기록에 따르면, 하와이로 간 사진신부의 나이는 대체로 15~20세였다. 신부와 신랑 간의 나이 차이는 평균 15세였고, 최고로 25세가 더 많은 신랑도 있었다고 전해진다.⁴²⁾ 이에 비춰본다면, 비석 주인인 남성들과 그들이 초청한 신부 간의 나이 차이는 전체 사진 신부와 신랑 간의 평균 격차보다 더 크다. 빅 아일랜드 지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선박부에 기록된 남성의 나이와 비석에 새겨진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선박부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더 많게, 많은 사람은 더 적게 기록한 경향이 나타난다. 때문에 선박부의 연령을 중심으로 신부와의 나이 차이를 계산했을 때 그 격차가 실제 나이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의 나이 차이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와이 입국 당시에 기혼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후에 사진신부를 초청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사진신부와 재혼한 남성의 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사진신부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그들을 하와이로 오게 한 첫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한인 남성과 만나서 재혼한 사례를 흔하게 볼

42)우리역사넷, “사진신부들의 결혼 조건과 특성”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60_0040_0030 (검색일: 2020.10.02.)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천연희의 경우에도 10년이 채 안 되는 결혼생활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가족에게 무책임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천연희는 재혼을 했던 한인 남편과 20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헤어졌고, 이후 44세에 미국인 남성과 만나서 세번째 결혼을 하여 여생을 같이 보냈다. 천연희와 같이 술과 도박, 경제적 무능 때문에 첫번째 남편과 이혼한 여성들이 재혼 상대로 다른 남성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진신부들이 하와이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인 성인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한인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도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다가 이혼한 사진신부와 결혼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³⁾ 1913년부터 1933년까지 한인 부부 간 이혼이 1,000명당 21명 정도였고, 그 중 3/4은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⁴⁴⁾

앞서 언급한 하와이 군의 시장인 해리 킴의 어머니인 김야물도 첫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버려서 이혼했으며,⁴⁵⁾ 이후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생 같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7세에 하와이 힐로시로 와서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이혼한 그녀에게 주위 사람들이 15세 연상인 김인기를 소개하여 재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딸 멩 도티 쉬러(Meng Doty Shearer)가 저술한 어머니의 자전적 스토리인 『Born to Lead』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⁴⁶⁾ 슬하에 팔남매를 두었고, 1984년 82세에 작고한 김야물은 하와이 군에서 김치사업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재혼한 이후 남편과 함께 1926-1943년

43) 1920~1924년에 한인의 국제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150명, 여성은 21명이었으나 1924~1930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169명의 남성과 71명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한인 남녀의 국제결혼을 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초기에 매우 적은 수였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웨인 패터슨, 『하와이인 한인 이민 1세』, 208쪽.

44) 웨인 패터슨, 같은 책, 209쪽.

45) Seri I. Luangphinit, *The Paths We Cross*, p. 24.

46) 이 책은 국내에서 『야무진 한국여인 야물이』로 2007년에 출판되었으며, 하와이 이민 104주년 기념으로 현지 한국일보에 특집 연재된 글을 정리한 것이다.

사이에 양계사업을 했으며, 1943-1953년 동안에는 ‘라우할라(lauhala)’라는 나무의 잎을 활용해서 만든 바구니 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1954에 김치사업을 시작하여 ‘키에우 김치(Keaau Kimchee)’라는 브랜드를 하와이 뿐 아니라 미 서부지역에까지 알렸으며, 이 사업의 시작부터 성공과정에 김야물의 막내아들 해리 킴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사업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 1994년까지 지속되었다.

빅 아일랜드에서 김야물과 같이 가정경제를 맡아서 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을 번성시킨 사진신부의 사제로 빅 아일랜드 시의원 아론 정(Aaron S. Y. Chung)의 할머니인 박순이를 꼽을 수 있다.⁴⁷⁾ 그녀는 가족과 함께 ‘Mamo 호텔’을 시작하여 번성시켰다. 김치사업 뿐 아니라 숙박사업 또한 사진신부들이 번성시킨 사업 중에 하나이다. 결혼하여 처음 사탕수수농장에 일했던 당시부터 상당수 한인여성들은 캠프에 거주했던 독신 남성의 빨래와 밥을 해주며 생계에 보탬이 되었고, 이는 이후에 군부대에 근무하는 독신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호텔 사업으로 확장된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습격과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하와이의 전쟁 역사와 함께 그녀들의 사업 또한 흥망성쇠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세리 르양피넷 박사의 2017년 저서에는 김야물과 박순이 이외에 여러 사진신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 연구의 대상인 비석의 주인공과 관련 있는 여성이 있다. 바로 <표 6>에 언급된 6번 이명운의 부인이었던 정량선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울산 출신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녀의 손녀인 Rhea R. Lee-Moku에 따른 것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을 ‘량선’이 아닌 ‘용순(Young Soon)’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확실히 동일 인물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특히 Rhea R. Lee-Moku가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의 하와이 입국 당시 이야기에 따르면, 어릴 때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절단당한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나이를 속여서 하와이에 있는 한 남성과 사진 교환을 통해 정혼을 한 상태로 하와이에 도착하였으나, 그 상황을 알게 된 ‘정혼한’ 남성이 할머니를 보고 엄지손가락이 없어서 “요리도 청소도

47)Seri I. Luangphinit, *The Paths We Cross*, p. 24.

할 수 없는 여자 원치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이씨라는 나이가 좀 많은 남자가 그녀의 딱한 처지를 보고 결혼해 주었다”고 Rhea R. Lee-Moku는 언급했다. 이 손녀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위 <표 6>에서 제시된 할아버지 이명운은 1922년에 여권 발급을 받아준 경남의 ‘정량순’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하지만 여권에 기록된 정량순과 손녀가 기억하는 할머니 용순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알라에 묘지의 비석 조사 당시에 Rhea R. Lee-Moku를 만나서 면담한 적이 있다. 그녀는 조부 이명운의 묘지를 찾아와도 비석에 새겨진 한자와 한글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연구자들은 탁본을 통해 마모된 비석의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고향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본인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셔서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Rhea R. Lee-Moku는 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가족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신이 없다고 하였다. 이명운의 가족과 관련된 의문은 향후 그의 후손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그나마 알라에 묘지에 있는 백 여 개의 한인 비석 중에 후손이 여전히 방문하고 있는 묘지는 손에 꼽힐 정도로 몇 개 안되었다. 그나마도 풍우에 의해 마모된 비문과 언어 문제로 인해 비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읽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또한 여권기록이 알려주는 내용과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Rhea R. Lee-Moku와의 만남을 통해 선조에 대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혈통과 뿌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한인 후손들을 위해 한인 1세의 비석과 선박부, 여권 기록 등이 전하는 정보를 통해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향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다.

48) *Ibid.*, p. 26.

IV. 故김리횡의 묘를 통해 본 이병준과 빅 아일랜드의 성공회

다음은 알라에 묘지의 비석 중에 김리횡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리횡이라는 옛 이름만으로 비석의 주인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그 비석에 지인(知人)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 대한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비석의 비문에 따르면, 김리횡은 78세로 1875년에 태어나서 1953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평양서촌 정동 출생이다. 선박부에 김리「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입국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비석의 뒷면에 ‘고리병준부인立’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선박부에 따르면, 이병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며, 1905년에 도착하였다. 도착 당시 나이는 19세로 미혼이었고, 어머니 순예(Soon Ye, 45세), 여동생(‘아기 AiKi’로 표기됨, 11세)과 함께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27세가 되었던 1913년 5월에 강원도가 고향인 사진신부 김말분을 위해 여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말분의 여권에 여권 신청자 이병준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덕희의 2013년 연구에서 이병준에 대한 기록을 일부 찾을 수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병준이 1951년에 사망하자 이후 그의 부인이 큰아들 식구와 함께 호놀룰루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덕희의 연구에서 이병준 부인의 이름이 여권에 기록된 김말분이 아니라 김필례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말분과 김필례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추후에 호놀룰루 방문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이병준의 비석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빅 아일랜드의 코할라(Kohala) 지역 카파우(Kapa’au)에 위치한 성 어거스틴 성공회 교회(St. Augustine Episcopal Church)에 이병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성당 내의 채색 유리창(stained glass)에 그와 그의 아들을 추모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In Memory of Pyung Joon Lee 1886-1951 리병준, Yoon Yil Lee 1920-

49)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11쪽.

1941 리윤일”이 그것이다. 이를 단서로 그에 대한 기록을 찾던 중에 이덕희의 2013년 연구에서 이병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⁵⁰⁾ 그는 빅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1917년에 다른 한인동료 9명 및 가족들과 함께 케헤나(Kehena) 지역으로 가서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서 일을 할 당시 코할라의 성 어거스틴 교회를 다녔으며, 그들의 자녀는 성당의 주일학교에서 운영하는 한인공부방에서 영어와 기독교를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10여년이 지난 후 코할라를 떠나 같은 섬 남단에 위치한 케헤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옥수수 농장 운영에 성공한 이병준은 1951년에 농장에서 트랙터 사고로 65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¹⁾ 그의 사망지가 케헤나인지 코할라인지는 불분명하다.⁵²⁾

다른 한편, 이병준과 그의 동료들은 케헤나에 거주할 당시에 현금한 돈을 가지고 2에이커(약 2,400평)의 대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⁵³⁾ 거기에 그들은 작은 교회당을 건축하여 성어거스틴 성공회에 소속된 케헤나 한인 회중을 구성하였다.⁵⁴⁾ 케헤나 한인 회중은 성어거스틴 교회의 사제 방문을 통해 주일 오후에 미사를 드린 후 주일학교를 운영하며 자녀들의 교육을 이어갔다. 1929년에 25명이 다녔던 교회당의 한인교인

50) 이덕희, 같은 논문, 207-211쪽.

51) 이덕희, 같은 논문, 211쪽에 따르면, 이윤일은 이병준의 둘째 아들로 호놀룰루에 유학을 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무덤은 호놀룰루의 오아후 묘지(Oahu Cemetery)에 있고, 묘비에는 “하와이 코할라 생”, “리병준씨 제2자”라고 적혀있다.

52) 이덕희의 2013년 논문에서는 케헤나 옥수수 농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20년 10월 17일자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손상웅 목사의 신문 기고문에 따르면, 이병준은 코할라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의 사망지는 불분명함.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22. 최원식”, 미주크리스천신문 (2020.10.17.) https://www.chpress.net/column-detail.html?cate=column&c_id=115&id=12191 (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53)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09쪽.

54) 회중(會衆, congregation)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아 회집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특히 타자와 구별되는 무리임을 가리키는 용어임. 성경사전, http://bible.biblesmartphone.co.kr/m/deluxe_bible/view_lexicom.php?bo_id=bibled&idx=7248 (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수는 해를 거듭하며 급격히 줄었는데, 연로한 한인들이 사망했거나 남은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인 회중은 1935년까지 유지되었으며, 문을 닫은 성당은 코할라의 성 어거스틴 교회에 기부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코할라의 성 어거스틴 교회에서 한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시점은 1904년으로,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 한인 감리교 회중이 모이기 시작한 시점보다 약 1년쯤 앞선다는 것이다. 코할라 지역의 한인들이 성 어거스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계기를 만든 사람은 최원식(세례명 요한 John 최 Choi)으로 알려져 있다. 1904년 6월 4일에 발간된 성공회 교회보에 따르면, 최원식이 성 어거스틴 교회에 통역자와 함께 방문하여 담임사제인 펜톤-스미스에게 한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⁵⁾ 이후 최원식은 매 주일 한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른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대해 펜톤-스미스 사제는 미국 영토 하와이의 주교인 헨리 레스타릭(Henry B. Restarick 재임 1902-1921)에게 “한인들이 교회에 들어서면 신발을 벗은 후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에게 감명을 준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⁵⁶⁾ 이후 「성공회 교회보」에 코할라의 한인 교인에 관한 기사가 여러 번 실렸으며, 1904년 9월에는 성 어거스틴 교회에서 한인을 위한 영어와 기독교 공부반 운영 소식도 포함되었다.⁵⁷⁾ 최원식은 레스타릭 주교로부터 평신도 사역자(Lay Reader)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그는 호놀룰루 소재 이올라니학교에 입학하여 영어가 가능해져 하와이 전역의 한인 선교에 앞장선 후 1911년에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원식 이후에도 당시 빅 아일랜드에는 한인 사역자가

55) “Work Among Koreans, Kohala”, The Anglican Church Chronicle (Honolulu June 4, 1904), 125.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08쪽 각주 재인용. 이덕희는 요한 최의 한국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미주크리стен 신문의 손상용 목사는 그를 일본 나가사키에서 기선 개력호를 타고 1904년 1월 23일에 도착한 최원식(Choi Won Sik)으로 특정하였으며, 당시 24세 총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56)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208쪽.

57) 이덕희, 같은 논문, 209쪽.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1905년 하와이 성공회가 최원식을 포함한 두 명의 사역자를 위해 146불을 지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⁵⁸⁾

다른 한편, 코할라 농장의 한인에 대한 기록은 <윤치호 일기>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윤치호는 대한제국의 외무협판의 자격으로 고종황제의 지시에 따라 1905년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한달 동안 하와이에 흩어져 있는 32개 사탕수수농장을 시찰하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농장 지배인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지배인들 중 상당수는 윤치호에게 한인 노동자가 게으르고 불만이 많다고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농장에서 만난 한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농장이나 지배인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나쁜 성품과 근무 습관을 가진 한인들이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때문에 그는 농장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한인들의 성품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여 농장 방문 시에 한인 노동자들에게 개신교도의 윤리와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직접 쓴 <윤치호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는 웨인 패터슨의 저서에 인용되어 있다.⁵⁹⁾ 윤치호는 여러 섬 중에서 빅 아일랜드 거주 한인 이민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일기장에 기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빅 아일랜드에 기독교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코할라 농장에서 저녁을 먹은 후 나는 약 200명이 모여 있는 교회당으로 갔다. 나는 그곳이 떠들썩한 것에 놀랐다.”⁶⁰⁾ 그는 또 다른 농장에 대하여 “이곳은 코할라 지역이었다. 이곳은 불만과 반기독교 중심지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의 한인들에게 훈계하고, 경고하고 질책하는 데 특별히 애를 먹었다”고 기록하였다.⁶¹⁾

이러한 윤치호의 코할라 지역 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앞서 살펴본 코할라 성공회 교회에 다니는 한인들에 대한 사제의 평가와는 대조된다. 윤치호가 만난 ‘불만’ 많고 ‘반기독교’적인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

58)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22. 최원식”

59) 웨인 패터슨, 『하와인 한인 이민 1세』.

60) 웨인 패터슨, 같은 책, 82쪽.

61) 웨인 패터슨, 같은 책, 82쪽.

최초의 남감리교(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인이었던 윤치호의 시선에는 그의 방문 당시까지 교회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빅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한인 사회의 문제들이 반기독교적인 문제로 보였으리라 짐작된다. 윤치호의 일기에서 지적된 문제적인 한인은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화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기생충” 같은 사람, 또한 사기행각을 벌이며 다른 한인의 돈을 떼먹은 사람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윤치호와 함께 빅 아일랜드 동부해안의 12개 이상의 농장을 방문했던 하와이 감리교회의 존 워드만(John Wadman)도 하와이 한인들이 “도박과 음주는 보통이었으며 한인 농장들은 모든 악행의 주모자들로 우글거렸으며 지배인들에게는 신임을 잃어버렸고 평판도 대단히 나빴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⁶²⁾ 윤치호와 함께 기독교가 한인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워드만은 빅 아일랜드 지역에 감리교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섬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한인들이 섬의 동서남북 전역에 있는 농장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선교가 쉽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⁶³⁾ 한편, 윤치호와 워드만의 시찰 이후 1906년부터 한인 목사 신반석(Pan Suk Dhin, 이후 Hong Kyun Shin 신흥균으로 알려짐)이 힐로와 올라(Olaa)농장에 처음 부임했다. 2년의 임기가 끝난 후에 그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또 새로운 한인 목사가 2년 주기로 고국에서 부임하여 빅 아일랜드 한인사회의 기독교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⁶⁴⁾

이상과 같이, 김리형의 묘와 비석에 남겨진 ‘고리병준부인立’라는 문구를 실마리로 이병준에 대한 발자취를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병준의 선박부 기록을 찾아서 그의 인적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1910년 이후에 하와이로 왔던 사람들의 여권 기록을 통해 이병준이 아내 김말순을 위해 1913년에 여권신청을 했다는 기록을 파악했다.

62) 웨인 패터슨, 같은 책, 83쪽.

63) Malyong Yi, *Hilo United Methodist Church: 1910-2010 Centennial Celebration: Faith in Action* (Hawaii District: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0), p. 30.

64) 신반석 이후 부임한 한인 목사에는 최진태(1908-1090), 홍한식(1910-1911), 조윤택(1912-1914), 한명교(1915-1916), 김이제(1917-1919), 이관목(1920-1937)이 포함된다. *Ibid.*, pp. 30-38.

김리횡의 여권 기록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병준이 코할라에 있는 성 어거스틴 성공회 교회의 신자였다는 점과 그가 1917년에 그의 동료 몇 명과 코할라를 떠나 케헤나에서 옥수수 재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병준이라는 인물이 이덕희 2013년 연구를 비롯하여 언론기사 등에서 언급된 이유는 성 어거스틴 교회 내부 채색 유리창에 그와 그의 아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로 인해 김리횡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비문에 새겨진 이병준의 부인에 대한 문구를 통해 빅 아일랜드 초기 한인과 성공회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 이병준의 삶의 궤적을 통해 봤을 때 그의 부인이 묘를 세워준 김리횡은 성공회 교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할라 지역을 포함한 빅 아일랜드의 농장을 시찰한 윤치호의 기록을 통해 다른 섬에 비해 빅 아일랜드 한인의 도덕적 타락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으며, 기독교 선교를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게 인식되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빅 아일랜드의 묘지 네 군데에서 만나게 된 155명의 한인 중에 여성, 그리고 여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남성의 삶의 궤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석의 비문과 선박부, 여권 기록 등이 전하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들의 이민 배경과 경로, 정착과 생활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문이 전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사료 및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조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빅 아일랜드로 오게 되었고, 왜 왔으며, 와서 무슨 일을 하였고, 어디에서 살았으며, 결혼과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무슨 종교를 믿었는지 등에 대해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처음에 이 연구를 위해 빅 아일랜드에 현지조사를 갔을 때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즉 비석의 탁본을 뜨고 비문을 명확히 읽어서 비석 주인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문을 읽어 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정보를 여럿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헬로시에서 한인 1세 조부모를 둔 3세 세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조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 부모세대가 혼종결혼을 했고, 특히 어머니가 일본계 한 명, 유럽계 두 명으로 아버지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보다 어머니의 모국에 대해 더욱 익숙한 면모를 보였다. 면담 과정에서 그들 모두 연구자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자신들이 한인, 즉 코리언으로 인식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와이에는 다른 에스닉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하와이언 정체성이 강한데다가, 빅 아일랜드에서 인구학적으로 한국인이 적었다는 점, 게다가 한국이 세계에서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누가 묻지 않으면 코리언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이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한국 성(family name)을 물려준 조부와 희미하지만 어렸을 때 시간을 함께 보냈던 조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세리 르양피넷 박사와 함께 비석 조사를 위해 빅 아일랜드를 방문한 연구자를 반갑게 맞아줬으며, 헤어질 때에는 비석에 새겨진 자신들의 조부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언젠가 한국에 있는 조부모의 고향을 찾아가서 그들이 하와이로 떠나오기 이전까지의 삶의 궤적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비문에 새겨진 ‘비밀’과 같은 정보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가는 ‘재미’를 깨닫는 와중에 면담에서 만난 한인 3세의 부탁을 듣게 된 연구자는 비석의 명단 작성 이외에 그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하와이 한인과 비석, 비문 분석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일부나마 그들의 조부모 세대의 궤적을 살펴보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잊혀진’ 또는 ‘읽을 수 없는’ 기록 속의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다 ‘잊고 살았던’, ‘읽을 수 없는’ 기록 속 그들의 후손 세대를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백여년 전에 조선에서 하와이로 떠난 한인들, 그 중에서 빅 아일랜드에서 살며 삶을 마감한 그들의 비문을 토대로 한 이 연구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한인의 비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오래 전 개인의 정보가 세세하게 공문서나 사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시기에 이민을 떠난 한인의 경우 그들의 삶과 죽음의 궤적을 찾는 데에 비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러한 비문에 토대를 둔 연구는 이민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지역과 개인의 삶과 죽음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셋째, 비문의 내용이 그 어느 기록보다도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비문을 토대로 한 이민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사료와 그것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내용의 보완(complementary)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넷째, 해외에서 자신의 가족, 나아가서 자신의 에스닉 배경과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한인 후손들에게 그들 조상의 비문에 대한 연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만, 비문 연구만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문에 새겨진 내용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사료와 선행연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보와 자료 또한 중요하다. 현지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과 또한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의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khmoon@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하와이 한인 1세(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비문(gravestone inscriptions), 빅 아일랜드(the Big Island), 사진신부 (picture bride), 성공회(the Anglican church)

(투고일: 2020.10.16, 심사일: 2020.11.16, 게재확정일: 2020.11.16)

<국문 초록>

‘잊혀진’ 또는 ‘읽을 수 없는(unreadable)’ 기록 속의
여성들:

빅 아일랜드(Big Island)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문 경 희

이 연구는 빅 아일랜드로 불리는 하와이 섬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한인 1세의 비문에 토대를 둔 것이다. 힐로시에 위치한 알라에 묘지와 코나 및 인근 지역의 옛 사탕수수농장 터에서 발견된 한인 묘지 네 군데에서 발견된 비석의 비문이 그것이다. 총 163기 중에 여성의 것 12기와 여성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정 여성에 관한 문구가 적힌 비석 1기가 연구의 주요 대상이다. 또한 비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진신부와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비문과 선박부, 여권 기록 등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 하와이 한인 1세의 출신 배경과 이민, 정착, 결혼과 생활, 종교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기술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와이 한인 1세에 관한 연구가 주로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중심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 또한 초창기 한인 연구는 1903-1905년에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을 기록한 선박부와 감리교 교인명단, 독립운동 등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인 여성의 비문과 여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남성의 비문 및 여타 기록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죽음의 궤적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하와이 한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민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 때문에, 또는 사회적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외되기 쉬운 소수 이민자의 이야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해외한인 연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Abstract>

Women in the ‘Forgotten’ Or ‘Unreadable’ Records:
The Gravestone Inscription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on the Big Island and Their Life Trajectory

Moon Kyoung-Hee

This paper examines the gravestone inscription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who lived and died on the Big Island, officially called Island of Hawai'i. They are located at the Alae cemetery in Hilo, the Holualoa cemetery in Kona, the Kalahiki cemetery in Captain Cook, and the Kohala cemetery in Kapaau on the Island. Among the total 155 gravestones, this study focuses on the 12 gravestone inscriptions for women and also 14 men who are found to have official records related to their female family members, mainly including their wives called ‘picture brides’. The official records used in this study in line with the inscriptions are from the list of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and the “passport list” issued at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of Honolulu, 1910-1924. One gravestone is also analyzed intensively in this study informing of some Koreans who joined the Anglican Church from 1904. There are many studies focusing on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re based on the voices and experiences of the immigrants in Honolulu, Ohau while those who migrated to the neighbor islands such as the Big Island are often taken for granted. Moreover, because men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migrants in Hawaii, most of the studies are based on men's

stories including their immigration backgrounds, arrivals, work and life experiences, and also their participation in a religious community and homeland's independent movement. Differently from most existing literature,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first-generation women's life trajectory by analyzing their gravestone inscriptions as well as the men who are connected to them by applying for their visa to Hawaii.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overseas Koreans in that it focuses on the stories of minority immigrants who are likely to be often marginalized due to the lack of their immigration data and social power.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003).

김원용 저, 손보기 엮음, 『재미한인 50년사』 (서울: 혜안, 2004).

김희곤 외, 『대구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문옥표, 이덕희, 함한희, 김점숙, 김순주(역주 및 해제),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서울: 일조각, 2017).

맹도티 쉬러 저, 신명섭 역, 『야무진 한국여인 야물이』 (서울: 종합출판 미디어, 2007).

오원철, 『하와이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한인 교회와 사진 신부와 관련하여』 (광주: 전일실업(주) 출판부, 1999).

웨인 패터슨 저, 정대화 옮김, 『하와인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서울: 들녘, 2003).

이선주, 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Hawaii: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004).

Malyong Yi, *Hilo United Methodist Church: 1910-2010 Centennial Celebration: Faith in Action* (Hawaii District: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0).

Seri I. Luangphinit,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Korean on the Big Island* (Hawaii: The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2017).

2. 논문

- 김도형, 「3.1운동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21호(2002).
-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호(2016).
- 김재기, 「미국한인들의 3.1운동 지지와 임시정부초기 독립운동 자금 모금운동」, 『한국보훈논총』, 18권(2019).
- 문경희,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호모미그란스』, 19집(2018).
- 오운호, 「제국의 경계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위치: 하와이 사진신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8집(2017).
- 이경민,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1: 하와이 이민과 사진결혼의 탄생」, 『황해문화』, 56(2007a).
- _____, 「사진신부, 결혼에 올인하다 2: 하와이 이민과 사진결혼의 탄생」, 『황해문화』, 57(2007b).
- 이덕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19호(2003).
- _____,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38집(2013).
-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16호(2002).
- 이선주, 「하와이 이민 초창기 한인들의 감정구조」, 『한국학연구』, 31(2013).
- 정미옥, 「여성의 이주와 (탈)근대성: 사진신부」, 『문화와 융합』, 40권 3호(2018).
- 정은귀, 「천사도와 사진 신부: 초기 재미 한인 이민문학의 재구성」, 『외국문학연구』, 55집(2014).
- 조은정,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2011).
-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호(2017).

Brandon Palmer,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집(2005).

Alice Yun Chai, “Feminist Analysis of Kife Histories of Hawaii’s Early Asian Immigrant Wome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2016).

3. 웹 사이트(신문기사 등)

우리역사넷, “사진신부들의 결혼 조건과 특성”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60_0040_0030 (검색일: 2020년 10월 2일)

성경사전, http://bible.biblesmartphone.co.kr/m/deluxe_bible/view_lexicom.php?bo_id=bibled&idx=7248 (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22. 최원식”, 미주크리스천신문 (2020년 10월 17일) https://www.chpress.net/column-detail.html?cate=column&c_id=115&id=12191 (검색일: 2020년 10월 20일)